



『 10-29호 주간 심층이슈 』

중국 다큐멘터리 채널 현황(2)

- 중국 TV방송산업이 채널 브랜드화 시대에 진입했지만 다큐멘터리 방송환경만은 아직 형성되지 않았다. 다큐멘터리 채널이 극히 적은 상황에서 몇몇 다큐멘터리 프로그램만이 중국 TV다큐멘터리에서 주류를 이루고 있다.
 - 2001년 CCTV에서 CCTV-10을 개국함과 더불어 다큐멘터리가 전면적으로 TV프로그램에 진입했고 지방 TV방송사들에서도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을 출시했다.
 - 중국 방송산업은 근 10여 년 사이에 사회경제구조, 문화형태, 가치관 등이 전환하는 시기를 거쳐 사회문화 변천과 매체생태 경쟁의 경험을 통해 점차 성숙됐고 부단히 새로워져 오늘날에는 적지 않은 브랜드 프로그램들이 자리 잡았다. 그중 새롭게 개설한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은 시장수요와 시청자들의 기호에 따라 인기있는 브랜드 프로그램으로 성장했다.
- 제작패턴(制作模式)
- 자체제작 프로그램(自办节目)패턴
 - 자체제작 프로그램 패턴은 프로듀서를 핵심으로 프로그램 제작팀이 제목선택(选题), 집필(撰稿), 촬영, 편집 등 방송 전반을 책임지는 일

련의 제작과정을 말한다. 현재 적지 않은 TV방송사들에서 이러한 제작패턴을 이용하고 있다. 자체제작 프로그램 패턴은 프로그램 제작팀이 자체의 인력과 제작루트를 갖고 PD의 능력을 발휘해 프로그램에 새로운 에너지를 불어넣을 수 있어 제작실무 능력과 프로그램의 품질을 제고할 수 있는 우위를 갖고 있다.

- 중국 CCTV와 상하이씨스채널(上海纪实频道)은 건실한 제작팀을 갖고 있어 대부분 방송사 자체가 지출하는 제작비로 제작하며 CCTV일 경우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의 80%이상이 자체제작 프로그램 패턴이다.

○ 위탁제작(委托制作)

- 방송기술의 변화에 따라 채널자원이 풍부해지면서 프로그램 시간이 점차 길어져 프로그램 자원 결핍현상이 나타났다. 따라서 일부 방송채널에는 안정된 제작팀이 없다 보니 위탁제작이 자연히 많아졌다.
- CCTV에서 일부 구매한 다큐멘터리는 대부분 CCTV의 소속 제작사에서 제작한 것이다. 동광량위영상회사(东方良友影视公司)가 제작한《대북고궁(台北故宫)》, 중시전매회사(中视传媒公司)가 출품한《돈황(敦煌)》등이 이에 속한다. 날마다 방송되는《탐색·발견(探索·发现)》프로그램도 제작업무 과중 때문에 자체제작 프로그램 패턴과 재제작(汇编) 및 위탁제작과 같은 3가지 프로그램패턴을 갖고 있다.
- 상하이씨스채널의《당안(档案)》프로그램도 2008년부터 매일 프로그램을 방송하여 똑같은 제작업무 과중에 봉착했다. 따라서 제작팀에서는 프로그램젝트 책임자와 편집 담당자를 새로 추천해 외부제작사와의 합작을 추진했다.

○ 프로그램 구매(购买节目)

- 완성된 프로그램이거나 프로그램 소스를 구매하여 방송사의 프로그램 재고를 늘렸다. 또한 방송사간의 공동제작, 프로그램 공유, 프로그램 판매 등 방송영상 산업 고리를 형성해 점차 시장화 산업화로 나아갔다.
- CCTV-10 채널의《과학세계(科学世界)》프로그램에서는 주로 해외 프로그램을 구입·번역(编译)했다.
- 윈난위성(云南卫视) 채널의《고전인문지리(经典人文地理)》프로그램도 해외에서 많이 구매했다. 일찍이 2009년, 프랑스 다큐영화《지인(智人)》을

구입한 뒤 재제작을 통해 다큐멘터리《돌변(突变)》을 새롭게 만들어 좋은 시청효과와 사회평판을 받았다.

- 상하이씨스채널, 중경과학기술채널, 후난금영씨스채널 등에서 방송되는 《지구지리(寰宇地理)》,《탐색(探索)》등의 프로그램 내용들을 해외에서 제작된 프로그램에서 많이 보충했다.
- 또한《전기(传奇)》,《전기중국(传奇中国)》과 같은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은 북경따루쵸문화미디어회사(大陆桥文化传媒公司)(이하 따루쵸프로덕션으로 칭함)에서 제공을 받았다.
- 독립제작사이며 미디어 기업인 따루쵸프로덕션은 다음과 같은 제작패턴을 갖고 있다. 첫째, 해외 프로그램을 번역 제작하는 패턴이다. 해외 다큐멘터리를 역제(译制)하여 본토화에 걸맞게 재창작을 함으로써 중국 TV시청자들에게 각광을 받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1999~2009년 사이 따루쵸프로덕션은 미국 디스커버리 채널 중 많은 프로그램을 중국어로 역제했다). 둘째, 프로그램의 소재들을 재통합해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따루쵸프로덕션은 현재 유효한 프로그램 재고가 1만여 시간이나 있고 해마다 해외에서 새롭게 제작된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의 중국내 판권을 구매했다. 이렇게 엄청난 프로그램 재고에 의거해 따루쵸프로덕션은 다양한 주제와 풍격에 따라《전기(传奇)》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냈다.

□ 프로그램 운영관리(栏目运营管理)

○ 자원 소스(资金来源)

- 일반적으로 프로그램 제작경비는 TV방송사 예산에서 나오고 방송을 통해 회수하는 형태이다. 첫 방송이 끝난 다음에야 시장판매를 통하지만 중국 국내 방송시장은 이상적이지 못했다.
- 프로그램 삽입광고(插播广告)의 대부분은 채널 혹은 TV방송사에서 투자유치를 하는데 채널, 시간대, 프로그램 품질과 직접 연관될 뿐 프로그램의 내용과 관계가 없다. 이를테면《탐색·발견(探索·发现)》,《진술(讲述)》,《인물(人物)》등의 프로그램은 광고수익과 전혀 연관성이 없다. 따라서 중국국제TV총공사의 매출수익도 프로그램 내용과 무관하기에 방송시장과 프로그램 생산수익을 반영할 수 없다.

- 프로그램과 관련된 적지 않은 독립제작사에서는 후기 제작, 아이템 개발, 소프트광고(软广告), 영향력 확대를 적극적으로 연구하고 있다. 비록 DVD, 도서 등 파생상품에 따른 자금회수에 일정한 한계가 있지만 대체적으로 투자균형을 이루고 있다.

○ 프로그램 제작과정과 품질관리

- 많은 프로그램 제작팀에서는 프로그램의 이념과 패턴에 부합되는 제작만을 고집할 뿐 개성화한 프로그램을 추구하지 않고 장기적인 프로그램 포맷(节目模板)을 만들어 과학적인 프로그램 제작 과정을 형성하려고 한다.
- 《탐색·발견(探索·发现)》프로그램 제작시스템을 살펴보면, 사전기획, 사전인터뷰, 시나리오 촬영, 기획촬영, 초벌편집, 재편집, 애니메이션, 화면특수효과, 음악효과, 본 방송 버전 제작 등 10개의 전문화된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다.
- 또한 프로그램의 제작과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프로그램 제작팀은 규모화 된 제작패턴을 연구·개발했다. 방송사 내 음향자료, 영상자료, 음악효과, 애니메이션, 특수효과합성 및 편집에 관련된 모든 자원을 집결하여 공업화된 제작프로그램 프로세스를 구성하였다. 주요창작팀원과 기술책임자들로 가상팀원을 구성하여 프로그램의 아이템에 따라 전문화된 제작시스템(방송사내 기술팀 및 방송사 소속인원, 방송사 외부 기술회사로 구성)을 편성하였다.
- 애니메이션다큐멘터리《대당서유기(大唐西游记)》, 올림픽관방(官方) 60부 대형다큐멘터리시리즈《동일한 꿈·동일한 세계(同一个梦想 同一个世界)》, 대형다큐멘터리시리즈《중화무술(中华武功)》15부 , 대형다큐멘터리시리즈《국가문물(国家宝藏)》30부 등의 프로그램이 이러한 프로세스로 제작되었다.
- 상하이씨스채널의《당안(档案)》프로그램은 프로그램젝트 책임자제도를 도입해 진일보된 경쟁력을 갖추었다. 프로그램제작팀에서는 경력과 관리능력이 있는 인재를 프로그램 프로젝트 책임자(예전까지 프로그램편성은 TV방송국의 PD가 맡았음)로 채용하여 사회적으로 실력이 있는 프로덕션회사와의 교류를 진행하였다. 그리고 제작된 프로그램의 판권을 모두 SMG의 소유(제작비용은 SMG에서 지출)로 했다. 프로그램 프

로젝트 책임자는 직접 프로덕션회사의 프로그램기획에 참여하여 제작 흐름, 품질, 관리경비 등을 감독하였다.

□ 프로그램 방송패턴(栏目传播模式)

- CCTV-10, CETV-3, 상하이씨스채널(上海纪实频道) 이외의 몇몇 전문채널들은 다큐멘터리 프로그램 방송플랫폼이 비교적 분산되어 있어 시간대가 집중되지 못했다.
 - CCTV의 다큐멘터리방송도 현재 메인 위치에서 방송되는 것이 거의 없고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의 방송시간마저도 모두 심야시간에 편성됐다. 이를테면《견증(见证)》,《백성이야기(百姓故事)》등의 프로그램들은 프로그램조정 영향으로 방송시간이 늘 뒤로 미뤄졌고 재방송시간도 고정적이지 못했다.《견증(见证)》프로그램의 방송시간이 새벽 0시에 편성됐지만 실질적으로 방송된 시간은 심야 1,2시에 편성됐다. 편성시간대가 시청률이 거의 없는 시간에 위치하다 보니 프로그램제작에 대한 자금투입뿐만 아니라 인적 자원을 상당히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 하지만 일부 TV방송사에서는 다큐멘터리프로그램을 주요한 방송플랫폼으로 삼았다. 2009년, 윈난(云南)TV방송사에서는 과감하게 세트형(捆绑式)방송패턴, 즉《2+1패턴(2편의 드라마에 1편의 다큐멘터리를 방송)》을 출시했다. 이를테면 드라마《나의团长 나의团(我的团长我的团)》을 방송한 뒤 곧바로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인《고전인문지리(经典人文地理)》를 방송했다. 톈진(天津)TV방송사의 과학교육채널의《진상·극중이야기(真相·剧情)》프로그램, 충칭(重庆)TV방송사의《용문진·현장(龙门阵·现场)》등이 모두 이러한 형태를 취하고 있다.
- 인기드라마《잠복(潜伏)》을 방송할 때에도 드라마《잠복(潜伏)》의 첫 방송을 위해 3개 위성채널에서는 드라마의 레퍼토리를 추적·발굴하는 다큐멘터리를 방송했다. 이와 같이 TV드라마와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이 협력·보완하면서 각각의 시청률을 높이는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즉 사회적으로 인기 있는 드라마의 내용과 관계된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을 방영함으로써 상호 윈윈할 수 있는 전략의 결과물이다.

- 현재 중국 미디어간의 융합 추세에 따라《투덜망土豆网》,《유쿠망优酷网》등의 동영상사이트 및 IPTV, 신화사 등의 뉴미디어 회사들이 다큐멘터리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 2009년 신화사, 중공 당사연구소, 광둥성 선전부 등 여러 부서에서 공동 기획한 100부 다큐멘터리 시리즈《감동중국-공화국100명 인물지(感动中国——共和国100人物志)》를 촬영·제작했다. 중국 차이나유니콤에서도 모바일TV를 통해 진귀한 역사의 순간들을 모바일이라는 새로운 매체를 통해 느끼게 해주었다.

□ 프로그램 방송효과

- 중국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의 시청률과 프로그램 편성 자체가 비교적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방송효과 또한 제한되고 있다.
- CSM의 중국 31개 성·시급 시청률 조사수치에 근거하면 2009년 CCTV의 각 다큐멘터리프로그램의 평균 시청률이 1%사이 이다. 기타 TV방송사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의 평균 시청률 역시 0.1%~0.4%정도로 낮은 시청률을 보이고 있다. 이는 프로그램 편성이 프로그램 전파 효과와 시청률에 얼마나 미치는 영향이 큰 지를 알려주는 중요한 지표로 볼 수 있다.(본문이 가리키는 프로그램의 평균 시청률은 첫 방송 평균 시청률을 의미함)
- CCTV의《견증(见证)》,《백성이야기(百姓故事)》,《인물(人物)》과 같은 프로그램들은 방송시간대가 비교적 메인 시청 시간대가 아닌 원인으로 평균 시청률이 매우 낮으며 기타 프로그램의 평균 시청률도 모두 0.4%대 이다. 그중 시청률이 비교적 좋은 프로그램으로《동물세계(动物世界-0.99%)》,《천하장관(天下大观-0.95%)》,《진술(讲述-0.65%)》및《과학에다가가다(走近科学-0.53%)》가 있다.
- 일반적으로 중국인들이 관심을 가지는 다큐멘터리 주제로는《동물세계

(动物世界)》,《사람과자연(人与自然)》,《천하장관(天下大观)》,《진술(讲述)》 등이다. 또한 《뉴스조사(新闻调查)》,《백성이야기(百姓故事)》,《탐색·발견(探索·发现)》과 같은 시사적인 내용을 담은 다큐멘터리 프로그램들의 평균 시청률도 나쁘지 않았다. 이는 방송내용과 제작수준이 여전히 일정한 경쟁력을 갖고 있음을 의미한다.

- 성급 위성채널 다큐멘터리프로그램 현황을 살펴보면 북경위성채널의 《당안(档案)》과 강서위성채널의《전기이야기(传奇故事)》가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북경위성채널의《당안(档案)》프로그램은 2009년 북경지역 평균 시청률이 1.85%에 달했으며 동 시간대 시청순위가 2위를 기록하였다. 강서위성채널의《전기이야기(传奇故事)》프로그램의 경우 2009년 평균 시청률이 0.55%이고 31개 성 내 시청순위는 11위를 기록하였다.
- 지상파채널 중 시청률이 비교적 좋은 채널은 CETV-3이다. 《다큐멘터리 첫 방송(首播纪录)》이란 프로그램은 2009년 평균 시청률이 1.34%를 기록하였다. 이 밖에 상하이씨스채널(上海纪实频道)의《고전재방문(经典重访)》프로그램은 2009년 평균 시청률이 0.71%에 달했다. 충칭 과학교육채널(重庆科教频道)의《진실(真实)》프로그램의 경우 2009년 평균 시청률이 0.54%, 후난금영씨스채널(湖南金鹰纪实频道)의《기이한 대자연(奇趣大自然)》프로그램의 경우는 0.43%를 기록하였다. 이 가운데 광동TV의 주강채널인《주강기사(珠江纪事)》프로그램은 2009년 평균 시청률이 3.14%에 달해 광주 지역에서 가장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였다.

□ 중국 우수 다큐멘터리 프로그램

- 중국 방송·TV협회 다큐멘터리사업위원회에서 주최한 제3회“기록·중국(纪录·中国)”대회가 지난 2009년 6월 28일부터 7월 1일까지 베이징에서 열렸다. 중국 중앙 뉴스 다큐멘터리제작회사(中央新闻纪录电影制片厂)에서 제작한《재탐방(重访)》, CCTV에서 제작한《과학인생(科技人生)》, 상하이씨스채널에서 제작한《지나간 이야기(往事)》등의 프로그램들이 중국 우수 다큐멘터리 프로그램부문 최고상을 받았다.

- 2009년 10월, 지린(吉林)TV방송사에서 제작한《귀성(回家)》프로그램은 중국 방송·TV협회 평심위원회에서 선정한 “신 중국60년 간 가장 영향력이 있는 60개 방송·TV프로그램(新中国60年有影响的60个广播电视栏目)”으로 선정되었다.

- 탄진(天津)TV방송사에서 제작한《중국인(中国人)》프로그램은 중국“10대 최우수 뉴스 다큐멘터리상(十佳新闻纪录片奖)”을 받았다. 충칭(重庆)TV방송사의《진실(真实)》프로그램도 중국TV예술교류협회에서“2009년 창의TV프로그램(2009创新电视栏目)”으로 선정됐다.